

2021 VOL. 95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뉴스레터입니다.

www.cyber.ms.kr | www.cyber.hs.kr

U-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반딧불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목 차 |

01

특별기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열정이 열매를 맺도록 응원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황준성 본부장」 5

운명이란 벽을 넘고 하늘을 나는 여러분은 꿈을 실현하고 있어요.

「광주북성중학교 윤남용 교장」 7

삶은 말한다.

「설악고등학교 이웅 교장」 9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12

「주성중」 수행평가도 즐거워요- 체육 수행평가 시간 • 유정숙 기자(2-2) 13

「춘천고」 춘천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내 현장체험학습 • 최동순 기자(1-1) 14

「강릉중」 졸업은 또 다른 시작 • 김오진 기자(3-3) 15

「강릉제일고」 표지공모전 입상 • 서옥섭 기자(2-2) 17

「수도여고」 옛날 교복 추억 • 김은배 기자(1-3) 18

「포항중」 현장체험학습 하는 날 • 황정순 기자(3-1) 19

「원주고」 학급자치의 날 이모저모 • 박상숙 기자(2-3) 20

「전남여고」 우리들의 동아리 활동 • 김순례 기자(1-1) 22

「원주고」 학급자치의 날!(2학년 3반 삼행시) • 원주고 2학년 3반 학생들 24

「제주제일고」 수시 대학 입시 설명회 • 채만석 기자(3-1) 26

「춘천고」 가을 아침 맑은 하늘, 우리 학교 현장체험학습 • 최동순 기자(1-1) 27

「광주북성중」 #학교를 빛낸 우리들 • 최지숙 기자(1-1) 29

「원주중」 원주방송통신중 체육 한마당 • 김춘옥 기자(2-3) 30

「남춘천중」 남춘천중의 현장체험학습 • 이영자 기자(2-2) 31

03

방송중·고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대상 수상작 및 수상소감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36
문예 부문(시)「경상중」• 박명동 학생 (1-5)	36
문예 부문(수필)「화명중」• 김영조 학생 (1-1)	37
서예 부문(한글)「홍성여자중」• 정민자 학생 (2-2)	40
서예 부문(한문)「진주중」• 이상철 학생 (1-2)	41
회화 부문(수채화)「홍성여중」• 김말순 학생 (3-2)	42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43
문예 부문(시)「경복고」• 신연옥 학생 (3-1)	43
문예 부문(수필)「목포고」• 조오름 학생 (2-1)	44
서예 부문(한글)「동래고」• 김종성 학생 (2-1)	46
서예 부문(한문)「학성고」• 조남길 학생 (2-2)	47
회화 부문(수채화)「강릉제일고」• 김연미 학생 (1-1)	48

04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50
「전남여고」 존경하는 김정례 학우님을 소개합니다. • 김순례 기자 (1-1)	50
「원주고」 우리 2학년3반 실장님 인터뷰 • 박상숙 기자 (2-3)	52
「수원여고」 60년 만에 내가 제일 잘나가 • 김옥희 기자 (2-3)	54
사랑해요! 선생님	56
「대전고」 대전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나다 • 신주철 기자	56
「남춘천중」 이경복 교장선생님과의 작별, 신충린 교장선생님과의 만남 • 이영자 기자(2-2)	58
「포항중」 이봉하 선생님 인터뷰 • 황정순 기자(3-1)	61
「원주고」 우리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 인터뷰 • 박상숙 기자(2-3)	63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65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님과의 만남 • 배창환 기자(3-3)	65

05

우리들의 이야기

시	67
「호원중」 피어있는 가을 • 김연옥 기자(3-1)	67
「춘천고」 시험을 준비하는 밤 • 최동순 기자(1-1)	68
「수도여고」 심술비 • 김은배 기자(1-3)	69
「호원중」 시월 • 김연옥 기자(3-1)	70
「주성중」 그리움 • 유정숙 기자(2-2)	71
「화명중」 겨울 마중 갑니다. • 배창환 기자(3-3)	72
수필	73
「호원고」 기쁨의 연속, 호원고등학교 • 김덕순 기자(3-5)	73
「남춘천중」 낙엽과 다들 바 없는 인생 • 이영자 기자(2-2)	74
「목포중앙여중」 친구에게 받은 마지막 선물 • 이정자 기자(3-1)	75
「제주제일고」 내 꿈은 요양보호사 • 채만석 기자(3-1)	77
「원주고」 한 자 올립니다 • 황미숙 기자(3-3)	78
「춘천고」 우리 부부의 새로운 행복도전 • 최동순 기자(1-1)	79

06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81
----------------------	----

01

특별기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열정이 열매를 맺도록 응원합니다. --- 05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황준성 본부장

운명이란 벽을 넘고 하늘을 나는 여러분은

꿈을 실현하고 있어요. ----- 07

- 광주북성중학교 윤남용 교장

삶은 말한다. ----- 09

- 설악고등학교 이웅 교장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님 인사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열정이 열매를 맺도록 응원합니다.

황 준 성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에도 여러분들의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새 학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등교를 해도 여러분들의 열의와 의지를 마스크 너머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분들은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셨겠지만 바쁨 속에서도 신선함과 뿌듯함을 느끼셨을 것이고, 재학생분들은 비록 마스크를 쓴 상태로 등교해야 했지만 그동안 못다한 학창시절을 누리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에는 개최되지 못하였던 학예경연대회가 올해에는 온라인 공모전 형식으로나마 개최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뜨거운 열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재능과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재능 많고 꿈 많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분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

수록된 대상 수상작을 보니 각 부문에서 뛰어난 실력을 지닌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이번 95호 U-반딧불에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기자 분들이 제보한 기사와 내용을 보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참으로 알차고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학업과 학교생활이 더 풍성하고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2022학년도에는 감사하게도 학성고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학성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로 이관되어 전국의 방송통신중학교가 모두 온전히 중학교 부설로 운영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 그 외 여러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누리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즐겁고 알차게 학업과 학교생활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저희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배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편지

운명이란 벽을 넘고 하늘을 나는 여러분은 꿈을 실현하고 있어요.

윤 남 용 | 광주북성중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부회장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장 윤남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학교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값진 것인지 여러분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없이 소중한 순간입니다. 가정 형편이나 사정에 의해 배움의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나이 들어 학교를 다니기로 마음먹고 도전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틈틈이 원격수업을 들었으며,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 출석수업을 들으며 이제 여러분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책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가난과 여러 사정으로 공부할 시기를 놓치셨지만, 배움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기르며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가슴 한편 지나간 남은 학창 시절을 보내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체육시간에는 내 속에 살아있는 동심을 깨워 마음껏 끼를 부리며 흥겹게 뛰어도 보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이는 다르지만 함께 배우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어도 보았으며, 점심시간에는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세 개의 방을 채우며 살게 되는데 첫째는 물질의 방이요, 둘째는 정신의 방이요, 셋째는 배우며 갖는 즐거움의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 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세 번째 방을 채우고 계신다면 나머지 2개의 방의 빈 곳도 거뜬히 메워지며 앞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모든 일에서 배움을 찾으시고, 뭐든지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또 다른 꿈을 성취하시기를 저 또한 기원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은 이미 운명이란 벽을 넘어 하늘로 높이 날고 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세상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묶어 둘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푸른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몸조심하시며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배움의 즐거움이 넘쳐나 기쁨의 나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

삶은 말한다.

이 웅 | 설악고등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악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장 이 웅입니다.

제 인사말의 처음은 8년 전인 2013년 저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의 인연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원도교육청 장학사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업무를 맡고 있던 2013년 가을, 원주의 어느 어르신께서 강원도에도 방송통신중학교를 꼭 설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간곡한 전화를 주셨습니다. 처음엔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다음 해 2014년 3월 다시 그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셔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싶은데 중학교 자격이 없어 꼭 방송통신중학교를 강원도에 설립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저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앞이 캄캄했지만 우선 방법을 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틀 후 번개처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팀을 꾸려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었고 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3월 춘천, 원주, 강릉에 3개의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방송을 활용한 홍보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를 하였는데, 주말에 선생님들과 강릉시장을 다니며 홍보물을

나눠주던 추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신입생 모집이 걱정이었는데 지원자가 많아 3개 지역에 각 학교 1학급 30명씩 모집하려던 계획을 결국 각 학교 3학급 90명씩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는 이렇게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2018년 2월 강원도의 방송통신중학교 1회 졸업생을 배출하던 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저의 도전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였던 여러분과 같은 학생분들의 열의 덕분에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를 위해 전화를 하셨던 분은 부부가 같이 중학교에 입학·졸업하시고 이후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진학하여 졸업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제게 전화를 주시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제가 교직생활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몰려옵니다. 새로운 도전은 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인연을 가진 제가 2021년 9월 1일 강원도 설악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또다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위한 글을 쓸 수 있는 영광을 함께 하게 되니 더욱 더 행복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우리 학교(설악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훈은 “배우자, 일하자, 잘 살자”입니다. 우리 학교 교훈을 처음 보는 순간 ‘아~ 독특한 교훈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을수록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훈을 조금 풀어서 적용하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배움을 얻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잘하고, 평생 후회 없도록 잘 살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는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집니다!!



‘존재가 설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설득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설득은 당한다고 표현되어, ‘사기를 당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다’와 같이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득을 당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설득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잘 살아온 사람이 하는 설득입니다. A가 말하면 잘 듣지도 않고 불평불만만 하지만, B가 말하면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설득 당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설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잘 요약한 짧은 시가 있어 소개합니다.

마음을 얻다(시인 나태주)

있는 것도 없다고

네가 말하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다고

네가 말하면

있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겠다.

이 시를 약간 풀어서 다시 말하면

있는 것도 없다고

네가 나에게 말하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다고

네가 나에게 말하면

있는 것이다.

너에게 설득당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잘 배우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왔으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아름답고 뜻깊은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여 도전을 망설이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감히 용기를 내서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신 여러분의 또 다른 도전을 기대합니다.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 12



학교 활동 소개

수행평가도 즐거워요! 체육 수행평가 시간

유 정 속 |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2반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10월 16일 체육 수행평가로 훌라후프 돌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열심히 연습했지만 훌라후프를 자유자재로 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엉덩이로 훌라후프를 돌리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훌라후프가 자주 떨어져 땀이 많이 났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체육 선생님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부터 훌라후프를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학우님 가운데 70세가 넘으신 학우님이 열심히 훌라후프를 돌려 당당히 A 학점을 가져가셨습니다. 다른 학우님들은 부러움의 눈빛과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자꾸 떨어지는 훌라후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도전하시는 우리 학우님들 모두가 열심히 연습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아직 훌라후프 돌리기가 어려운 몇몇 학우님들은 다음 시간에 도전하기로 하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땀도 났지만 항상 열심히 연습하시는 우리 학우님들! 열정은 모두 A 학점입니다.

이상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유정속이었습니다.



열심히 훌라후프를 연습하는 학우님들

학교 활동 소개

춘천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내 현장체험학습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1반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8월 8일 일요일에 코로나19로 그동안 미뤄왔던 현장체험 학습을 교내 상록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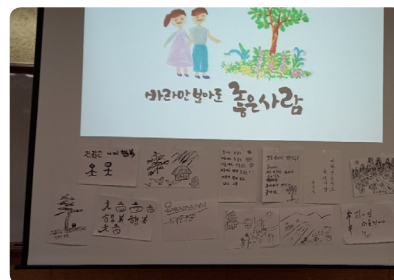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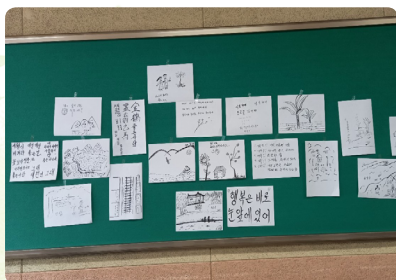
1교시에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담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이후 교내 문학 경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학 경연은 ‘배움, 학교, 공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필과 시를 경연하였습니다.

이후 춘천에서 캘리그라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정애 선생님을 학교로 초청하여 다양한 그림과 이야기 들을 직접 써보고 그리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색다른 시간이었기에 기대도 되고 뜻깊었습니다.

캘리그라피 시간은 약 3시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도 없이 먹물로 된 붓 펜만 가지고 그림과 글씨를 주제에 맞도록 개인 마음대로 그려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아 원활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교장선생님과 최종택 교무부장 선생님, 저희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모든 은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최동순이었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졸업은 또 다른 시작

김 오 진 |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3반

중학생이 되던 날 설렘과 떨림으로 입학했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졸업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졸업이란 아쉬움도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시작이 되겠지요. 3학년 3반 담임 선생님들과 학우님들 이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잠시나마 사진도 찍고 춤도 추고 장구도 치면서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랜만에 진행되는 현장체험이어서 그런지 이날을 행복한 추억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도마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주어 도마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모두 열심히 만들어보면서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서 준비해 주셔서 외부로 현장학습을 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더욱 감사해지는 하루입니다.

위쪽 사진은 저희 반 가장 큰 학우님이신데, 매우 열심히 도마를 만들고 계시네요. 공부도 잘하시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시는 학우님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부부 학우님들이십니다. 항상 행복한 모습이신데 오늘도 역시 다정히 도마를 만들고 있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상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김오진이었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표지공모전 입상

서 옥 섭 |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 표지 사진 공모전 당선작 <강릉 경포 호수>를 올려봅니다.

요즘도 자주 비가 오고 있지만 저 무렵은 가을장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아침에 남편을 따라 시댁 산소 벌초 길에 나섰는데, 마침 날씨가 개어 있어서 좋은 사진이 가능했습니다. 경포 호수는 어느 때 봐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른 아침의 호수 풍경은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이른 아침의 경포 호수 풍경은 저도 처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가깝게 살고 있어도 이른 아침 시간에 경포 호수를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처음 가본 이른 아침의 경포 호수에서 저렇게 맑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을 찍기 위해서 해상도를 잘 맞춰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찍기엔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찌어찌 궁리 끝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는데, 여러분도 도움도 받아보고 연구도 해보시고 멋진 사진 찍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지난해 우리 학교 선배님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상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서옥섭이었습니다.



표지 사진 공모전 당선작 <강릉 경포 호수>

학교 활동 소개

옛날 교복 추억

김은배 |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3반

10월 24일 2시 수업을 마치고 이후 일정이 없는 학우들과 ‘옛날 교복’ 추억을 남기러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옛날 교복을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3년 만에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교복을 입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복을 입으니 기분이 좋은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쉴 새 없이 공간을 흔듭니다. 모두 나 이와 상관없이 모두 교복을 입으니 잘 어울리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추억을 쌓아가는 순간이라 그런지 더욱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다른 학우님들과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곳을 찾아 교복을 입고 단체 사진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김은배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현장체험학습 하는 날

황 정 순 | 포항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1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가리고 눈만 빼꼼 내놓은 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가 아쉬운 눈인사만 하고 지내다가 드디어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위치한 환호공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북부해수욕장 맨 끝 해안마을인 설머리 뒷동산에 위치한 해안절벽과 수목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또 현대의 미를 조화롭게 가미한 광활한 공간에는 포항시립미술관이 있었고, 소나무 길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천혜의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조망이 일품입니다.

코로나19로 단체로 나들이 가는 것을 자제해야 했기에, 230여 명의 전교생들은 뿔뿔이 흩어져 산책을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아쉬웠지만 우리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나들이에 만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포항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황정순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중앙에 흰 셔츠 입으신 분)과
이봉하(왼쪽 두 번째) 3학년 수학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보물을 찾는 학우님들

학교 활동 소개

학급자치의 날 이모저모

박 상 숙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3반

어제는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자치의 날로 책가방 없이 등교하는 날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등교하였습니다.

교실 문을 들어서니 책상 위에 응원도구가 잔뜩 있었습니다. 응원도구를 보니, 설레는 마음이 배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해 주신 학우님도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 시간에는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와 각자 준비해온 선물로 번호표를 뽑아 교환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1학년 후배님과 3학년 선배님들의 교실 풍경이 궁금해 한 바퀴 돌아보는데, 모든 교실에 맛있는 음식들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일, 음료, 떡, 과자 푸짐한 먹거리에 선물까지, 바라만 보아도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유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 팀과 학생 팀의 족구 시합이 펼쳐졌습니다. 바라보는 눈길에 가슴 졸이며 우리 반은 목청 높여 선생님 팀을 응원하였습니다.

저희의 응원 덕분에 더욱, 경기에 몰입하신 선생님 팀과 학생 팀! 결과와 상관 없이 즐기며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보입니다.



학생 팀과 선생님 팀의 족구시합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린 작은 행사에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깊은 산속 산토끼 다람쥐가 노는 숲속을 지나온 듯 즐거움이 가득했던 날.

학교에서 제공해 주신 도시락과 떡, 상품권 각 학급마다 나눔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과 하루 종일 사진 촬영으로 수고로움이 많으셨던 사진작가님, 학급자치의 날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전하며, 함께여서 즐거웠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우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상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박상숙이었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우리들의 동아리 활동

김 순 례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1반

오늘은 학교에 등교하는 날! 등교일은 항상 설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자율 활동이 있어 부지런히 움직이며 카메라로 모습을 담았습니다.

전남여자고등학교엔 다양한 자율 활동이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남여자고등학교의 자율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요반입니다. 신나는 장구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민요반 학우님들을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항상 큰 소리로 열창하시는 민요반 학우님들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날씬한 학우님들이 많으신 요가반입니다. 요가는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예뻐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가반 학우님들은 항상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민요반 학우님들



요가반 학우님들

세 번째로, 라인댄스반입니다. 항상 흥겨운 리듬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 저도 따라 추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벗어나 배우고 즐기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라인댄스반 학우님들



네 번째로 오카리나반입니다. 살면서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오카리나반 학우님들을 보면 항상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오카리나 음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꼭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오카리나반 학우님들



난타반 학우님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만 같은 난타반입니다. 리듬에 맞춰 난타 공연을 펼치시는 학우님들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립니다. 너무 재미있어 보입니다.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움이 가득한 동아리 활동! 모두 배우고 싶다면 욕심인가요?

자랑하고 싶은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 이상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김순례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학급자치의 날! (2학년 3반 삼행시)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3반 박상숙

- **박** 박꽃처럼 청순하고 예쁜 학우들
- **상** 상급학교 가고 싶었던
소년 소녀들의 간절했던 꿈
늦은 나이에 골 깊은 인생 골짜기에
서 날개 달고 펼쳐가는 무지갯빛
여정이 때로는 몸도 마음도 힘들긴
하지만 우리 서로 파이팅 외치며
- **숙** 숙명처럼 다가온 고운 인연 자상하
신 우리들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꽃
보다 더 예쁜 학우님들과 어깨동무
하며 걸어온 발자국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학년 3반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3반 박진형

- **박** 박수칠 때 떠나가라는 말이 있는데
- **진** 진형이는 박수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떠납니다.
- **형** 형설지공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부지런히 공부하다 때 되면
떠나겠습니다.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3반 곽삼

- **곽** '곽' 거친 이름
- **삼** 삼삼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3반 이숙자

- 이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 한 것은
- 숙 숙자는요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걸
- 자 자랑해도 될까요?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3반 손재순

- 손 손 귀한 집안에
- 재 재수 좋게 태어나서
- 순 순둥이라고 사랑받고 귀엽게 자랐어요.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3반 황점옥

- 황 황금물결 일렁이는 가을 들녘
- 점 점을 찍듯 내 마음 물들고
- 옥 옥에 갇히듯 가을빛에 내 맘 빼앗겼네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3반 박종복

- 박 박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 종 종일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 보니
- 복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인생길 이더라.

학교 활동 소개

수시 대학 입시 설명회

채 만 석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1반

지난 9월 26일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설명회가 교내 일맥관에서 있었습니다.

제주 관광대학, 제주 한라대학에서 학과장님과 교수님께서 참석하셨고, 우리 교무부장 선생님과 각 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작년에 졸업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님들까지 오셔서 입시 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먼저 동영상으로 대학 소개를 한 다음, 학과장님과 교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년제, 4년제까지 다양한 학과에 수시와 정시 모집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간 대학에, 나이가 좀 있는 학우님들은 야간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대학은 고등학교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 등 보다 더 폭넓은 세상으로 전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회를 마치고 3학년 학습자들은 각자 원하는 대학에 수시 원서를 접수하며 진지하게 설명회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채만석이었습니다.



제주관광대학교 설명회



한라대학교 설명회

학교 활동 소개

가을 아침 맑은 하늘, 우리 학교 현장체험학습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1반

행복했던 현장체험학습 가을 아침 맑은 하늘, 아침햇살에 눈이 부신 10월 31일 일요일은 우리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일입니다.

전반기부터 계획되어 있던 현장체험학습과 체육대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되면서 실망이 컸었는데, 선생님들께서 강원도립화목원의 넓은 정원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생으로 또 다른 추억을 가슴속 깊이 담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서리들로 활짝 피어난 꽃들은 볼 수 없었으나 곱게 물든 단풍들이 우리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먼저 목공예 체험도 하고 현장에서 손수건에 예쁜 그림들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얼마나 진지하게 그림들을 그리는지 모두 일류 화가들 못지않습니다.



가을 추억을 남깁니다.



목공예 체험학습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후 상영관에 들렀는데요. 상영관에 들르니 중생대 공룡시대의 공룡 탄생과 생활 모습들을 생생하게 상영하여 공룡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듯 생생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 학교에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김밥과 반 임원들이 준비한 떡, 과일, 음료 등 푸짐한 먹거리들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장기자랑 시간엔 모두 가지고 있는 끼들을 한껏 뽐내며, 행복한 모습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유 시간에는 모두들 아름다운 풍광에 취한 행복한 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내며 포즈를 취하는데, 기자인 나로서는 제일 바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최동순이었습니다.



상영극장에서의 행복한 표정들



중생대 공룡생활의 현장체험



금강산도 식후경 즐거운 점심시간

학교 활동 소개

#학교를 빛낸 우리들

최지숙 |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1반

오늘은 지난 10월 23일 토요일에 있었던 온라인 공모전 시상식에 광주북성중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분들이 당당히 입상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름이 불린 우리 학교 3학년 정옥실 선배님, 3학년 선배님의 수상 소식에 우리 반 학우님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상식 전, 담임선생님께서 전화가 와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축하 인사와 꼭 시상식에 꼭 참여 하라고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아쉽게 시상식 날 가족행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다음 날 학교에서 영상으로 시상식을 보고 가슴 언저리가 뜨거워지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것도 저에게는 기쁨인데, 많이 부족한 저에게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대표로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수상까지 했다는 소식에 놀라고 행복했습니다.

가방끈이 짧다는 명예를 늘 달고 살았던 우리들이 방송통신중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학예경연 대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인정을 받았다는 면에서 참 공부하러 학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한 좋은 글들도 많았는데 다음에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화향이 서서히 지는 가을날 산야는 물들기 시작합니다. 함께 또 다른 길에 동행자이신 선배님들과 학우님들, 늘 함께 학교 소식으로 만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상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최지숙이었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원주방송통신중 체육한마당

김 춘 옥 |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3반

오늘은 원주방송통신중학교 체육한마당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가을 하늘을 짝 채우는 웃음소리, 어린 시절 가을 운동회가 생각나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원주방송통신중학교 학우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체육대회를 맞이하여 반별로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반터를 입으니 체육대회가 더욱 더 실감이 납니다.

웃놀이도 진행하였는데, 다들 승부욕이 넘쳐나서 누가 승리를 가져갈지 흥미진진하였습니다. 결과에 상관 없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게임에 임하는 자세가 보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겨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학우님들 모두 흥겨워 보입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학교 측과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상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김춘옥이었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남춘천중의 현장체험학습

이 영 자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2반

11월 7일 남춘천중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날이 밝았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마음들은 싱송송송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에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침체되어 있는 요즘, 현장체험학습에 잘 어울리는 종목을 학교에서 엄선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원예치료 플라워 리스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물은 레드 장미, 레드 베리, 유칼립투스 등이었습니다. 누가 누가 더 디자인을 예쁘게 할까 열중하는 모습들이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크레파스와 맛소금으로 다양하게 색소를 만들어서 유리병에 차곡차곡 넣어보았습니다. 소품으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스포츠댄스와 오락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하고 각 교실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학생기자인 저는, 각 반을 돌며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크레파스를 잡아보게 되었고 여유 있게 꽃을 만지며 소년 소녀처럼 설레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시간이었습니다.

- 1학년 1반 일동 -



조용한 우리 반! 배움의 터가 있어서 더없이 행복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직 방송통신중학교를 모르는 친구들은 꼭 이곳을 알게 되어 저희처럼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1학년 2반 일동 -



1학년 3반 선생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전합니다. 1학년 때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2학년 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 1학년 3반 일동 -



2학년 1반에서는 블랙으로 맞춰 입고 이렇게 율동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반을 자랑하고 싶어 한 컷 올려봅니다. 예쁜 우리 반, 3학년 때도 즐겁게 지내봅시다!

- 2학년 1반 일동 -



2학년 2반 고마운 친구들 내년에도 또 같은 반에서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한 획을 그어 우정을 이곳에 남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건강하게 잘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

- 2학년 2반 일동 -



1학년에 입학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 코앞이네요.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각 과목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학생들도 모두 건강합니다.

- 2학년 3반 일동 -



새로운 배움에 여러 가지 즐거운 기억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체험학습 생활이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행복했습니다. 졸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 3학년 1반 일동 -



올 한해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즐거움이 가득한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 얼마 안 남은 신축년 잘 마무리합시다.

- 3학년 2반 일동 -



3학년 졸업반 코로나로 현장체험학습 대신 댄스 수업을 끝내고 한 컷 졸업반이라 성숙해 보입니다. 졸업까지 행복합시다.

- 3학년 3반 일동 -

방송중 선배님, 후배님들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우님들끼리 서로 우정도 돈독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만들어갑시다.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전교생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상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이영자였습니다.

방송중 · 고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대상 수상작 및 수상소감

방송중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 36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 43



또 다른 길

박 명 동 | 경상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5반

늘 순탄하고 행복의 길
누릴 것으로 생각지 말라.
대나무가 대풍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길 향로도 또한 그러니
아무리 고난이 괴롭혀도

대나무가 한 마디 넘을 때
그, 고통처럼 견디다 보면 반드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노래한다.

또,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
그, 희망의 길 있다는 것을.



수상소감

선천적인 척추 장애로 인해, 시상식 당일 병상에서 온라인 접속을 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대상을 받게 된 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이제는 혼자가 아닌 스승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길

김 영 조 |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1반

어릴 때부터 나는 유난히 엄마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따랐다. 평소에도 윤리, 도덕을 강조 하시며 엄격하시고 대쪽같이 곧으신 성품이 무서운 분이셨다. 그렇지만 가르침대로 행하면 칭찬도 아끼시지 않으시며 한없이 깊은 사랑을 듬뿍 주시는 다정다감하신 분이기도 했다.

그와 달리 엄마는 딸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곱고 자상하던 모습은 점점 없어지고 웃음도 없어지며 짜증도 많이 늘었다. 딸 부잣집 만딸이었지만 동생들보다 키도 작고 몸도 약한 나를 꼼짝하게 아끼고 보살펴 주시던 엄마는 아니었다. 동생들이 잘못된 것도 말이인 나만 혼내시고 야단치시니 나는 속상하고 억울해서 자주 울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엄마를 말리시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그것이 더 서운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아버지께서 엄마 몰래 나의 손을 잡고 일 가시는 들이나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 업어도 주시고 달래도 주셨다.

지천에 핀 야생화도 한 아름 꺾어 주시며, 밤이나 감, 머루나 달래 등 그때그때 산이나 들에서 나는 것들로 나의 기분을 살려주셨다. 그러면 나는 야단맞아 울던 내가 아니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뽀얀 뭉게구름이 피어나듯 환한 얼굴로 방실방실 웃고 있었다. 아버지를 따라가면 어디든 좋았다.

어느 초 여름 매미소리 기분 좋게 요란할 때인 것 같다. 앞산에 소 풀 베러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갔다. 동생과 나는 엄마 모르게 가야 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하면 또 야단치실 테니까. 아버지께서도 그런 사실을 아시고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 모퉁이를 돌아 엄마가 안 보이는 곳에서 지계를 태워주셨다. 동생이 신이 나서 재잘거리며 재롱을 피울 때쯤이면 벌써 산 언저리 오솔길 초입에 지계를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낮으로 곧은 나뭇가지 싹둑 잘라서 예쁘게 막대기도 하나씩 만들어 주셨다. "내가 저

위에 가서 풀 베고 있을 테니 천천히 놀면서 오거라” 하시고 다시 지게를 메시고 훌쩍 오솔길 산속으로 걸어가셨다. 우리는 막대기를 하나씩 잡고 이리저리 풀들을 툭툭 치면서 노래도 부르며 오솔길을 따라서 아버지 가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조금 올라가다 보니 금방 뻥 뚫린 풀 냄새며 가시덤불과 풀들을 흰하게 뻥 뚫린 새 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아버지께서 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동생과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런데 더 이상 길이 없는 막힌 길이였다. 갑자기 덜컥 겁이 나서 돌아 나오려는데, 빨갛게 잘 익은 산딸기를 발견했다. 그제서야 알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딸들이 산딸기 따 먹으라고 가시밭길 온갖 잡풀 다 베어 예쁜 새 길 만들어 놓으신 그 마음을.. 하지만 그때도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

동생과 함께 새콤달콤 잘 익은 산딸기를 따먹었다. 키가 닿는 딸기만 따먹고 오솔길로 다시 올라왔다. 오솔길을 걷다 보니 또 다른 새 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분명히 여기도 산딸기가 있나 보다 생각하며 들어가니, 역시나 산딸기가 많이 있었다. 굵고 좋은 것만 배불리 따먹고, 넓

은 나뭇잎 몇 개 포개 맛있어 보이는 산딸기를 조금 따서 담았다.

그리고 다시 오솔길에서 나오니, 아버지께서는 그 사이 한 짐 가득 소풍을 싣고 그 위에 산딸기 몇 가지 꺾어 꽂아둔 지게를 받쳐놓고 앉아 쉬고 계셨다.

“거기 산딸기 많이 있제. 마이 따묵었나” 하시며 검붉은 얼굴에 굵은 땀 방울 흠치시며 빙그레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이셨다. 나는 얼른 따온 산딸기를 아버지께 드렸다. “느그나 실컷 따먹지 뭣 하러 따왔노” 하시면서도 한입 가득 딸기를 드시며 “아버지 생각해서 따온 거구나” 기특해 하셨다.

딸이 여섯이고, 마지막 둘은 아들을 두셔서 팔남매를 키우셨지만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기만 하고 훌쩍 떠나가셨다. 너무나 큰 충격과 허전함에 나는 점점 무기력하고 재미없는 삶을 의미 없이 살아가곤 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올해부터 나는 또 다른 새 길이 생겨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다. 2021년 3월 14일 나의 새 길이 만들어진 날이다. 그렇게 원했던 중학생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렵기

도 하고 수업에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았지만, 교과서를 정독하며 알 때까지 해보자라며 다짐했다.

지금은 스스로가 대견하다. 나름대로 재미있고 잘 따라가고 있다. 행복하다. 이제 내가 닦아나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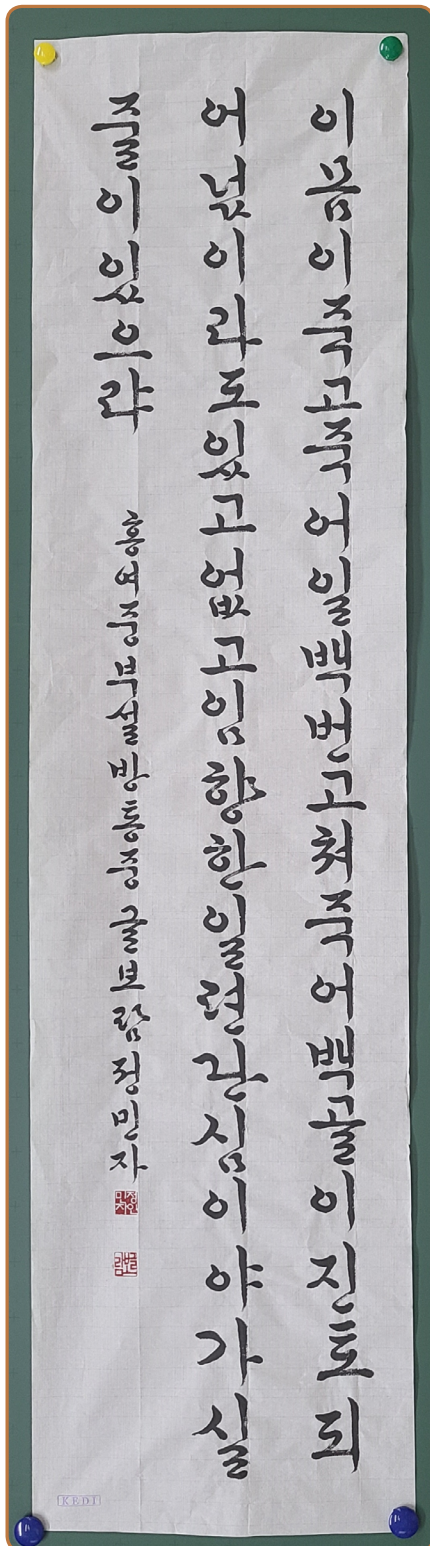
나의 또 다른 새 길에서 내 인생의 노년을 행복하게 다시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노력하며, 나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아름다운 나의 또 다른 새길에 정성을 쏟아부을 것이다.



수상소감

이 수상을 계기로 늘 움츠리고 하지 못했던 것들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진심을 담아 정성으로 도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

서예 부문 / 한글



정민자 |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2반



수상소감

방송중은 삶의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어릴 적 배우지
못한 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학우가 있어 너무 좋고, 배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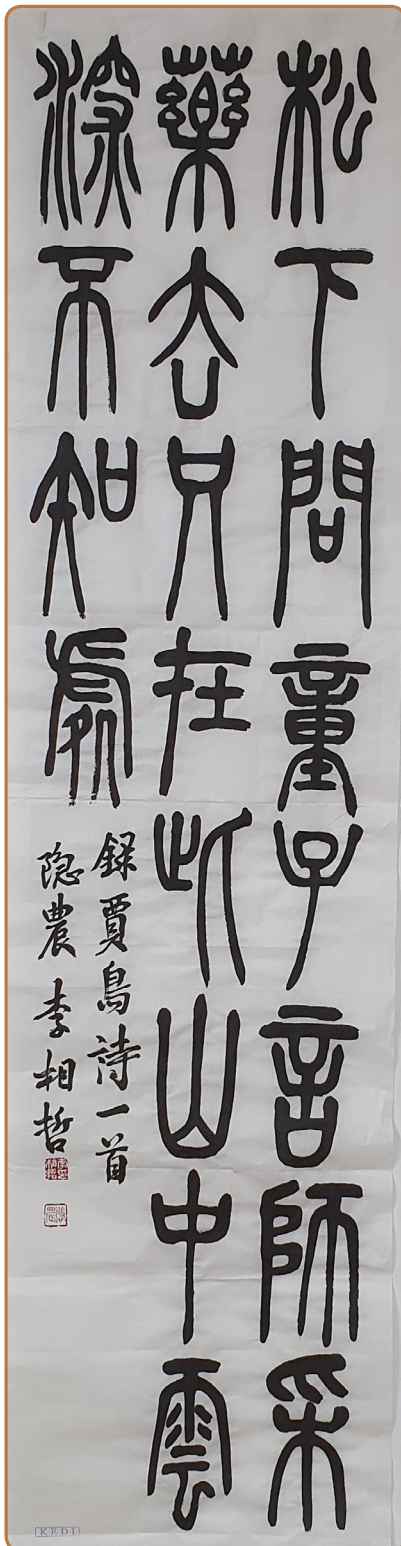
서예 부문 / 한문

이 상 철 | 진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2반



수상소감

어릴 때부터 꿈에 그리던
학교 교육을 늦게나마 받을 수
있어 영광였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겠다고
다짐했던 입학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화 부문 / 수채화

김 말 순 |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2반



수상소감

나이가 많아 이제 공부는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방송중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학우님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집

신 연 옥 | 경북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1반

골짜기를 지나고 산등성이 넘어서
구불구불 산골길 산모퉁이 돌아가면
아마 마주할 이웃 하나 없는
작고 아담한 초가집 한 채
외로운 홀어머니와 육남매가
티격태격 오순도순 살아왔던 곳

봄이면 뒷산에는 새하얀 오얏꽃이
발그라니 피어나던 앞뜰의 복사꽃과
살랑살랑 봄바람에 장단 맞추어
초가집을 얼싸안고 춤을 추었고

별 총총 빛나던 여름밤이면
마당에 멍석 깔고 밤하늘의 별을 세다
떨어지는 별동별 따라가고픈 마음

지붕 위에 주렁주렁 달린 박들이
뽕뽕 익어가는 가을이 되면
여름 내 풀 뜯기던 암소 등에도
포동포동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온 세상 하얗게 눈이 덮이면
따뜻한 아랫목 화롯가에서
감자 고구마 구워 먹으며
두런두런 나누던 옛이야기 소리
아직도 귓가에 들릴 듯한데
정든 집 흔적 없고 아름드리 나무들만
무심한 세월의 두께를 알려주고

눈 감으면 떠오르는 추억 속의 초가집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수채화되어
내 마음 깊이 오롯이 남아있네



수상소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떨어져서 잠도 못 이뤘는데, 많이 부족한 저를 대상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상의 영광을 경북방송통신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게 해 준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분들과 담임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길

조 오 림 | 목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1반

꽃길이 아니더라도 힘내요

괜찮아 괜찮다며 손 등 두드리며 주머니 받거나 위로를 한다. 서로 붉은 눈시울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을 보고 둘이서 처음으로 펄펄 울었다. 속초 앞바다는 근심을 몰고 왔다가 쓸어 담아가기도 했다.

남편은 직업 군인이었다. 정년 일 년을 앞두고 신장 투석이란 병명을 안고 33년 명예퇴직을 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더 이상 할 수 없어 군인정신 부분을 접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퇴직 날짜에 맞추어 가족과 부대에 들어갔다. 자랑스러운 보국훈장을 받아 옆구리에 끼고 서너번 휘청거렸다. 마지막 군복을 입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부여잡고 연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무리 잘 하고 자랑스럽게 부대 정문을 나오려고 했었다. 33년 함께한 군화 신발도 휘청거리는 발목을 마지막으로 꼭 잡아 주었다.

매서운 추위에 폭포의 어름이 허영게 얼어 터졌다. 최전방으로 들어가 한 달 동안 임무를 수행

할 때가 있었다. 위태로움을 감수하며 안보 불안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육체의 시름을 느끼며 내면의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명치끝이 오래도록 저리게 했다.

퇴직해서 두루두루 여행하자고 했던 약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마음이 착잡해 올 때면 사계절 호강하는 설악산에 올라갔다. 씩씩 거리며 험덕이고 올라오는 등산객이 부러웠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모습을 보면 곱게 물든 근사한 단풍나무처럼 아름다웠다.

중턱에 앉아 눕는 풀을 일으켜 세우고 나뭇구는 돌맹이로 탑을 쌓기도 했다. 골짜기 하얀 산 목련을 보면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티 하나 묻지 않고 고된 삶 참 깨끗하게도 피었다. 봉긋한 하얀 꽃잎 만지다가 멍이 들까 억센 손이 부끄러워 얼른 내렸다. 살면서 아픈 근심 철철 넘치는 계곡물에 혹 띄어놓았다. 넘실넘실 흘러간다. 자연이 준 감동을 받으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산을 내려왔다.

고향 목포로 이사를하기로 했다. 집을 정리하는 중 장롱 속 편지 한 뭉치를 발견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집에 없는 남편에게 불평 늘어놓으면 군사 우편으로 좋은 글귀를 담아 잘 키우고 힘내라며 보내 준 짧은 편지들이었다. 삶의 힘줄이 되었던 까마득한 추억 한 뭉치였다. 남편 옷은 사복이 3-4벌이 전부였다.

비상소집에 촉을 두고 살았기에 군복이 정장이 되었고 외출복도 되었다. 신발장 군화를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웠다. 군인이 된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아들 집에 다니러 오시면 출근하는 아들 신발 군화를 입고 있던 치맛자락으로 닦아주며 배웅하고 들어오시곤 했다. 그때 유별나시다 했었는데 그러고도 남았을 자식 사랑이었다.

이삿짐을 싣고 설악산을 끼고 돌아오는데 버팀목이 되었던 친구들, 이웃을 두고 오려니 모든 것

을 잃는 것만 같았다. 한참 동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침묵이 흘렀다. 속초 배경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설악산이 밀려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형제들이 살고 닦고 깨끗한 집에 새롭게 이삿짐을 풀고 육신을 풀었다. 시간이 흘러 남편 얼굴에 점점 맑은 하늘이 찾아왔다. 웃음도 찾아왔다. 훌훌 털고 180도 바뀐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다른 길을 만났으니 행운은 우리에게 멀어 행복으로 힘을 내기로 했다. 잘 견뎌준 남편에게 고맙고 박수를 보낸다. 썩 괜찮은 남편이었다고.



수상소감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실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밝은 빛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모든 관계자분들, 학우님들, 선생님들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 기회가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언젠가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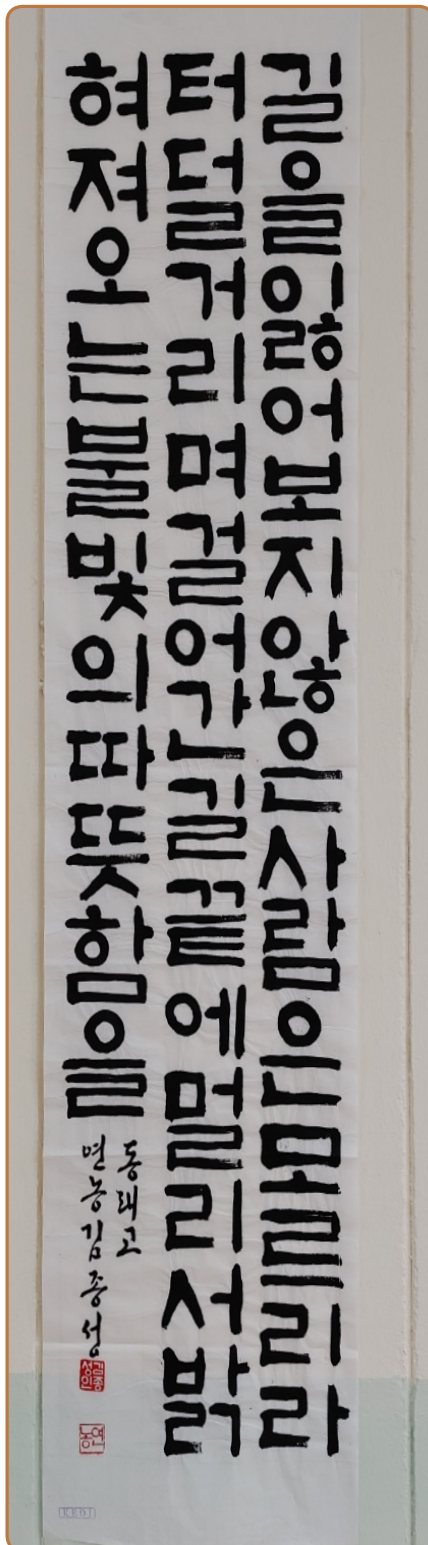
서예 부문 / 한글

김 종 성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1반



수상소감

평생 배움에 대한 속앓이를
풀어낼 길이 없어 시작한 서예가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래고등학교의
이름표를 달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 상을
이 영광을 저희 동래고등학교에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경야독하시는
여러 학우님들과 학생회
학우님들과도 이 영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예 부문 / 한문

조 남 길 | 학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수상소감

먼저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금 늦은 학창 시절에 무엇이든지 참여하고자 하여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응원해 주신 학우님들, 선생님들께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採藥忽迷路 千峯秋葉裏
山僧汲水歸 林末茶煙起

辛丑秋李珥先生詩 鶴城高德山趙南吉

회화 부문 / 수채화

김 연 미 |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1반



수상소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기쁩니다. 저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란 매년 갈등을 느꼈던 제게 '유레카',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인 곳입니다. 조금씩 채워지는 수분으로 뿌리도 내려 볼 수 있고, 열매를 맺어 나눠줄 수 있으며,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것도 배우고, 배움이 거름이 되어 세상에서 나아갈 수 있는 법을 알려준 곳인 이곳에서 멋진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04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 50

사랑해요! 선생님 ----- 56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 65



반갑다! 친구야

존경하는 김정례 학우님을 소개합니다.

김정례 학우 인터뷰

김 순 례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1반

전남여고 김정례 학우님을 소개합니다.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왕 언니’라고 불리는 김정례 학우님은 올해 연세가 80세이신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배움에 열정이 가득하신 김정례 학우님을 만나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여고 부설 방송고 1학년 학생기자 김순례입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여고 부설 방송고 1학년 1반 김정례입니다.

기자 학교에 입학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학생 주위에서 학교에 다녀보라는 권유도 있었고, 수업을 들으면서 머리를 자주 쓰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 나오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배움에 있어서 한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나오고 있어요.

기자 학교에 나오실 때 기분은 어떠신가요?

학생 항상 학교에 나올 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마치 18세 여고생처럼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해요.

기자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족들이 도움을 주시나요?

학생 컴퓨터도 새로 사주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어요.



김정례 학우님

기자 이제 곧 지필고사인데 어떻게 공부하시고 계시나요?

학생 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져 공부하기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0문제 중에 1문제 정도만 기억에 남아요.

기자 앞으로 어떤 과목이 제일 배우고 싶으신가요?

학생 영어가 제일 배우고 싶어요. 손주들이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공부한다면 나중엔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자 많은 대화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와 김정례 학우님의 어린 시절엔 배움의 한이 많은 세대였는데, 늦게라도 배움의 문이 열려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배움에 문이 열려있는 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례 왕 언니의 열정적인 모습을 본받으며 주어지는 삶의 그날까지 열심히 배움에 도전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우리 2학년3반 실장님 인터뷰

박진형 학우 인터뷰

박 상 숙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3반

안녕하세요. 봄 내음 전해오는 3월에 만나 출석일이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반듯한 인품과 책임감 있는 일처리에 공부도 잘하는 2학년 3반 실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기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실장 박진형입니다.

기자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어떻게 진학하게 되셨는가요?

학생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배우지 못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다가 이제는 아이들도 다 자랐고 해서 그동안 가슴 속에 묵말라 있던 배우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알아보는 중 원주고등학교 정문에 방송통신고등학교 모집 현수막을 보고 원서를 접수하여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기자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우선, 하고 싶었던 공부를 원없이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또 다정하고 사랑하는 우리 학우님들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훌륭하시고 고마우신 선생님들을 만나 더더욱 행복합니다.

기자 방송고에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신지요?

학생 바라는 점은 없고요. 아쉬움이 가슴 가득합니다. 먼저 저의 2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코로나19와 함께 하게 되어 아쉬움이 큼니다. 마스크를 쓰고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학우

님들 얼굴도 잘 못 알아보고, 소풍이나 체육 대회 같은 행사를 못하니 재미있고 소중한 추억 없이 지나가는 학교생활이 많이 아쉽습니다. 또 고마우신 선생님들과 더 돈독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아쉬움이 큼니다. 졸업 전에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실장님께서 조기졸업을 하게 되셨는데 조기졸업 동기는 무엇입니까?

학생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 보니, 예상외로 공부가 재미있고 할 만 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왕 공부를 시작했으니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더 넓고 높은 대학에 진학하여 많은 학식과 지식을 쌓고 싶어 조기졸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형 학생님

기자 앞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예비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학생 주저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세요. 신바람 나는 인생길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시작됩니다.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자 실장님께 방송고는 000이다. 한 마디로 정의하신다면?

학생 나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새로운 삶의 도전이고, 더 성숙된 박진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꿈의 무대입니다.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소년의 출석일 등곳길은 꽃길이었고, 학우님들과 함께 하는 교실 풍경은 꽃향기 가득했으며, 꿈꾸던 무대 위에서 하고 싶었던 공부에 매진하는 날들은 제게 있어 꿈만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60년 만에 내가 제일 잘나가

김덕중 학우님과 만남

김 옥 희 |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3반

수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불구하고 공부도 운동도 제일 잘하시는 모범생 김덕중 학우님을 소개합니다.

교과 우수상 받는 김덕중 학우님! 같은 반 동생들은 노력하는 왕 언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간에도 항상 먼저 솔범수범하시고 수행평가도 만점이랍니다. 학우님은 미술시간을 가장 좋아하시는데, 김덕중 학우님이 쓰시는 글귀처럼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김덕중입니다.

기자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학생 저는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 학교를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2년째 세상을 다 얻은 마음으로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퇴직하고 시골에 내려가



김덕중 학우님

농사나 지으면서 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를 통해 학교를 다닐 수 있
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자 어떻게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셨나요?

학생 원래 농사를 지으며 무료하던 중 영양보호
자격증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
다니시는 수원여고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전단지를 주시면서 다녀보라는
권유에 선뜻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행운이었죠. 어릴 때 학교를 다닌 지 60년이
지난 후 책가방을 매고 학교에 가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학생 저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운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음악,
미술, 체육, 창의적 체험 활동은 정말 재미
있었습니다. 미술시간에 운동장에서 작가
처럼 사진 찍을 때, 음악시간에 교가 배울
때, 몇 날 며칠을 외우고 또 외웠답니다.

앞부분을 외우면 뒷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아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기자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신가요?

학생 두 딸이 수원여고 졸업생이라 너희들 교가
알아? 하면서 멋지게 교가를 불러주었더니,
딸들이 엄마 대단해 하고 이야기해 줄 때
어깨가 으쓱했죠~ 대학교 등록금까지 지원
해 준다는 딸들이 든든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 학우님들에게
한 마디 해 주세요!

학생 네, 저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즐겁게 공부
하다 보니 1학년 때 국어, 한국사 교과 우수
상도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친절하신
선생님들, 다정한 학우들 점심 식사까지
제공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입학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 후배님들이
있다면 못다 이룬 꿈과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도전하세요.
영원히 번창하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대전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나다

신 주 철 | 대전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학생들 사이에서 ‘소통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생들을 많이 아끼시는데, 인터뷰에도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장선생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자 교장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고등학교 제39대 교장 윤장순입니다. 저는 대전고등학교가 모교입니다. 모교에서 교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모교의 교장선생님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교장선생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방침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우리 대전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대의 학생들에 대해선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하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사



대전고등학교 제39대
윤장순 교장선생님

회 및 문화적 여건의 급속한 변동에 따른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하도록 교육합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교육의 장입니다. 또, 평생교육의 이념을 확산시켜 국민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기자 방송통신고등학생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학교는 배움의 장소이며 함께하는 공동체로 개인의 조그마한 희생과 봉사가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사로운 이익과 자만을 버리고 서로를 도와주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 새로운 배움의 삶에 도전한 자신에게 자부심과 감사함을 항상 가슴에 품고 열심히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이경복 교장선생님과 의 작별, 신충린 교장선생님과 의 만남

이영자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2반

남춘천중 이경복 교장선생님 퇴임인사

제가 40년 가까이 현직 교사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이라는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8월 31일 남춘천중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순간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주신 행복도 있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후진 양성에 한 평생을 바친 교직의 길이 후회 없는 보람된 길이었고 방송통신중학교가 오늘보다 꿈이 살아있는 내일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을 응원하고 사랑하며 살아왔음에도 부족한 마음만 가득한 아쉬움이 있지만 제 인생은 여러분의 따듯하고 정겨움으로 잊지 못할 아름다운 날들이었습니다.



이경복 교장선생님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힘들지만 지난 일들을 뜻
있는 보람과 추억으로 기억하면서 배움의 길을 당
당하게 걷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
습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목표한 졸업
장을 품고서 아울러 상급 학교로의 계속된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십시오.

무엇보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
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교장

이경복 올림



신충린 교장선생님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근무하
다 이번 9월 1일에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
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신충린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
송통신중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
로 인해 여러 가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많
이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서 생활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
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
망해 봅니다.

그나마 올해 2학기부터 모두 학교에 등교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충린 교장선생님

어느덧 한여름의 무더위도 물러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이렇게 풍요로움과 풍성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학업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 꿈과 미래를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교직원들은 여러분들의 그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

도록 열심히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 멋진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계승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교장
신 충 린

기자 이경복 교장선생님 중학교 학생기자인 제가 대표로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새로 오신 신충린 교장선생님! 저희 학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교생 전원이 교장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이봉하 선생님 인터뷰

황 정 순 | 포항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1반

1학기 지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가장 어렵고 생소하다고 느끼는 수학을 가르치시는 이봉하 선생님께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흔쾌히 응해주신 선생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자 우선 선생님! 갑작스러운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밝으신 우리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1967년생 이봉하입니다.



기자 네,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수학은 항상 어렵고 지루하기만 했던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은 적당한 사투리도 섞어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그런지 수학 시간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또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언제나 학생들과 잘 어울립니다. 일단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선이지, 절대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지루하고 따분한 수업이 될 것
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가 좋지 않고, 공부만 한다면
수학 시간이 재미없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저는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을 듣고 여러
과목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성공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성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학생들에게 되도록 결석하지 말라
고 합니다. 공부가 싫으면 그냥 학교에
와서 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결석하
지 않고 학교에 나와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선생님 맞습니다. 늘 밝은 모습으로
학생들과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학교 오는 것이 항상
설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별하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우리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 인터뷰

이석인 교무부장선생님

박 상 숙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3반

교무부장 이석인 선생님께서는 지난 해 저의 담임이셨는데, 늘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항상 친절하신 교무부장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교무부장 선생님을 만나 뵈러 다녀왔습니다.

기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부장 이석인입니다.

기자 선생님께서는 교직 생활을 꿈꾸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이셨나요?

선생님 교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학생이 있을 때, 지구과학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반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원주시장에서 지구과학 선생님을 만나 뵈었는데, 선생님의 카리스마 넘치시고 예의 바른 모습에 선생님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

고, 교사가 멋진 직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사가 되자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교직생활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선생님 첫 발령지인 속초여자고등학교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생각납니다. 벌써 50이 넘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기자 방송고 학생들에 대한 가르침 속에 어떤 어려움과 보람이 있으신지요?

선생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라 건강이 무엇보다 염려되고요. 보람되는 일은 제 수업을 열심히 경청해 주는 눈빛입니다. 그런 눈빛을 보면 정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기자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처럼, 선생님께서도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요?

선생님 곧 있으면 퇴직인데요(2024년 8월 30일). 좋은 책도 많이 읽고 한 줄 서평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책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 선생님께 방송고는 000이다.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선생님 방송고는 즐거움이다. 새 봄에 연둣빛 새싹이 자라나듯 늦깎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며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송고는 가슴 충만한 행복 충전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전국 방송고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선생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지요. 처음이 늦었다고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산다는 건 좋은 거래요!

기자 선생님! 늘 바쁘신 줄 알면서도 인터뷰 부탁드려 엄청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인터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시라며, 커피 도구를 한 아름 들고 오셔서 교실 가득 향긋한 커피 향을 풍겨 주시며 웃으시던 모습, 제자들 마음속에 무지개가 뜨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던 그 순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회문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석인 교무부장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님의 만남

배 창 환 |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3반

제도권 배움이 부족하여 늘 소외되며 살아온 그 아픔을, 비록 늦은 나이지만 치유하자!라며 용기 내어 입학하였습니다. 3년이란 수많은 날들을 견뎌내었더니, 꺼내어 보일 수는 없지만 가슴이 뿌듯해지며 쥐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그 허허로운 아픔이 치유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이 되고 학생 회장직과 학생 기자직을 맡고 보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모자람이 많았습니다. 많은 나이에 늦은 공부를 하시는 학우님들을 볼 때마다, 더 나은 여건 개선과 학생 복지 증진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님

면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20일 만에 면담이 성사되어 학생대표를 선정하여 교육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면담이 시작되었고 진지하게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심각하게 경청하시며 각 건의문을 검토하시는 김석준 교육감님입니다.

하루가 지나서 담당 장학사님으로부터 최선을 다하여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건의사항이 실행될 수는 없겠지만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면, 내년에라도 아니면 내후년이 되더라도 늦은 나이에 공부하시는 학우님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의 학교 생활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김석준 교육감님에게 감사드리며 진행해주신 장학관님에게도 수고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왼쪽부터 교육청 장학관님, 교육감님, 본 학생회장, 3학년 학생회장, 2학년 대표 반장, 1학년 대표 반장입니다.

05

우리들의 이야기

시 ----- 67

수필 ----- 73



피어있는 가을

김 연 옥 |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1반

가을비가 몇 차례
소리 없이 심술을 부리더니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들판엔 코스모스들이
물결 되어 넘실거립니다.

가을비 덕분에
색깔이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오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양탄자같이 부드럽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들
깊어지고 가을과 함께
마음도 싹 치유되길 바랍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밤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1반

채우고 채운다며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곳간 속은 늘 텅 빈 부족함뿐이다.

생쥐에게 빼앗겨 버린 곳간 속에
야속함 우울함도 함께 넣어 채우다 보니
별빛 반짝이던 밤이 아침 햇살에 눈부시다

밤새 물레 틀던 어머니 무명 적삼 짓듯
갈 것이 알곡들을 털고 모아
곳간 속에 채우는 법을 익힌다.

뒤돌아서면 모두 빠져나가버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곳간 속에
몇 알이라도 남겨 간직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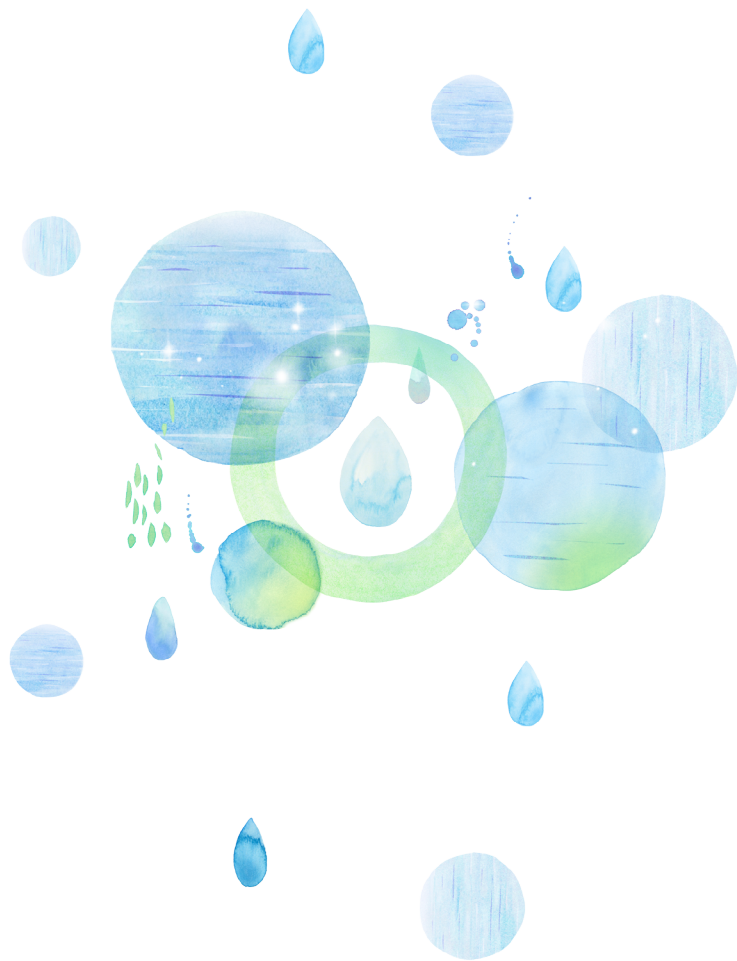
심술비

김 은 배 |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3반

애먼 비가
눈치 없이
쉬지 않고 내린다.
다가오는 추석
농부들의 피땀
결실을 사정없이
해를 입혀
가슴 졸이게 하는지

빗줄기 소리에
달아난 잠
벌떡 일어나 뭐를 할까
딱히 할 것도 마땅치 않고

뻑뻑한 눈만 비비며
줄기찬 빗소리만
듣고 있네
오늘만 내리고
그만 쉬었다 오시게
심술비



시월

김 연 옥 |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1반

소리 나는 대로
말하기 쉬운 대로 하다 보니
시월이란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월은 달궜다가 식혔다가
온탕에서 냉탕으로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시월은 얼렸다가 녹였다가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붉게 물들여 놓고
소리 없이 사라져 갔다



그리움

유 정 숙 |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2반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서늘한데
새벽에 펼쳐진 안개는
건힐 줄 모르고

오다 멈춰버린
가을은
겨울 앞에서 머뭇거린다.

푸르던 나뭇잎
고운 옷 갈아입고
국화향기 났으며
님 마중 가려는데

뒷 산 상수리나무 빈 등지에
소쩍새가 구슬피 울어대는구나

앞 냇가 시냇물에
설익은 단풍잎
수취인 없는 편지 한 장 떠내려가고

허공에 그리움의
긴 꼬리 내려보는데
하얗게 내린

찬 서리에 가슴이 시리다



겨울 마중 갑니다

배 창 환 |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3반

곱게 물든 가을 단풍 머리에 이고
 친절엄마 마중 가듯 겨울 마중 갑니다.
 비바람 뒤흔들 건디며 물들여낸
 형형색색 고운 단풍 가슴에다 품고서

지친 몸 충전하러 겨울로 갑니다.
 군불 지펴 달궈진 구들방 아랫목에
 배 깔고 엎드려 나의 사연 녹이며
 지친 영혼 달래려 겨울 마중 갑니다.



기쁨의 연속 호원고등학교

김 덕 순 | 호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5반

2016년도에는 중학교에 가고 싶어 의논하던 중 몇 명과 함께 호원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처음 입학하는 날엔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이 났다. 선생님께서 컴퓨터 메일을 보내는 방법이나 공부하는 방식을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어렵고 생소하지만 수학 문제, 영어, 과학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꼭꼭 체크하며 수업을 들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하셨고 각처에서 모인 학생들을 만나는 것 또한 기쁜 일이었다. 학교 가는 날은 꼭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고, 기다려지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2학년도 매우 기대가 된다. 2학년이 되어도 지금 함께 학교에 다니는 학우들과 학교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기다리고 준비하면 때가 온다.”

1996년도 장대비가 내리고 강원도 철원군에 큰 수해로 시어머님과 아들 남편 모두 물에 떠내려갔다. 남편과 아들 나는 담벼락을 잡았고 어머니는 잡지 못해 떠내려가서 돌아가셨다. 그 후로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없었고 땅, 집, 소와 개 모두를 잃었다.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난감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세월은 흘렀다.

다시 1999년도 수해를 입고 정말 힘들었지만 맡은 책임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때가 온다. 이제 늦었지만 나의 마지막 삶을 멋지게 살며 배우지 못한 공부도 하며 살고 있다. 70이 넘어 아무 쓸 때가 없을 때 공부를 시작하니 너무 재미있고 아들, 딸 같은 아이들과 어울리며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낙엽과 다를 바 없는 인생

이 영 자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2반

바람만 불어도 한들거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녹색이 적색으로 바뀌고 뼈대는 서있지만 검은
머리 흰머리 되듯, 한잎 두잎 색을 바꾸면서 머리
카락 빠지듯 낙엽도 서서히 떨어진다.

나뭇잎이 한들거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같이 이
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고, 갈잎이 바닥에 내
동댕이쳐서 날아다니면 세월이 갈 길을 재촉하
는 듯하고, 바람에 낙엽이 날아가는 소리는 저 멀
리서 나를 부르는 소리 같다.

저녁노을에 비치는 낙엽은 황혼 길에 접어들어
인생 별거 아니구나 하는 느낌.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낙엽이 쌓인 저만치 아래 잔잔한 호수에는
조용히 세월 낚는 조사님들도 낙엽처럼 누렇게
황혼이 물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을까? 누가 볼
때는 멋있다고 하지만 개개인 나름대로 가끔은
낙엽 같은 인생이라고 나처럼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을 거야.

이젠 슬슬 하나 정리하며 마음을 베풀면서 낙
엽이 떨어지면 우울하다고 하지 말고 나뭇잎과
대화를 해보자.

아침에 눈 뜨면 꼭 주저앉지만 말아다오 나는
너를 바라보면서 하루 또 하루 너를 만나 행복하
다. 대화로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저물어가고 있다.



친구에게 받은 마지막 선물

이 정 자 | 목포중앙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1반

1986년 12월 겨울 서울은 눈도 많이 오고 추웠다. 친구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회사를 그만두고 송별회를 한다며 가장 친하게 지냈던 김민철, 유장열 오빠 그리고 김현주 나까지 넷이서 분식을 먹고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현주는 우리에게 뿔도장 하나와 은반지를 예쁘게 포장하여 마지막 선물을 주었다. 당시 16살이었던 나는 뿔도장을 선물해 주는 현주가 의아했다.

현주와의 마지막이 이렇게 긴 이별이 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던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잠시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현주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난 현주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며 많이도 울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고향으로 이사를 왔다. 부모님을 모시며 너무 힘겹게 살다 보니 현주에 대한 그리움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현주가 준 뿔도장이 계속해서 현주를 그리워하게 했다. 회사를 다닐 때도, 결혼해서 집

을 장만할 때도, 인감을 만들 때도, 은행 통장을 만들 때도 현주가 선물해 준 노란색 도장은 늘 쓰고 있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니 현주가 그림고 또 그리워 경찰서에 가서 살았던 곳과 현주와 함께 일했던 회사를 말하며 찾으려고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현주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가고 어느 날은 도장을 꺼내어 딸들에게 보여주며 친구가 40여년 전에 준 귀한 선물이라며 친구가 보고 싶다고 울었다.

하지만 찾을 길은 없었다. 그리움은 가슴에 쌓이고 쌓여 산이 되어간다. 도장을 선물로 준 현주의 마음이 그랬을까?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의미이었을까?

오빠들도 나처럼 귀하게 쓰면서 현주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 강동구 거여동 개미마을 가방 공장에서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힘든 시간을 함께했던

친구라서 더 그립다. 만약 도장을 받지 않았더라면 스쳐 지나간 인연으로 생각하며 흐릿한 내 기억 속에 남아있겠지.

만약 현주를 만날 수 있다면 꼭 안고 울고 싶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얼굴도 예쁘고 키는 160 정도로 기억한다. 현주는 어디서 살고 있을까? 1986년 서울 강동구

거여동 마천시장 있는 곳에 살았는데 ...

내 친구 현주야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았지만 잘 이겨내고 지금 같은 하늘 아래서 무사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주길 간절히 바라본다. 현주도 나와 같은 겨울에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운 내 친구 김현주 많이 보고 싶구나.



내 꿈은 요양보호사

채 만 석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1반

요즘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에 재학 중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년에 전문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노후에 삶을 어떻게 보람 있게 살아갈까 생각하다 사회복지학과와 연관된 요양보호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즈음 치매나 뇌질환, 사고로 인한 장애 등 남의 도움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주위에서 종종 뵙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만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건강하면 비슷한 나이에 노인을 돌봐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자

마음먹고 지난 4월 제주도 아라동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하였습니다.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0시간씩 총 240시간 대장정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8월 7일 제주도 한라중학교에서 350명 정도 수험생들이 모인 고사장에서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보았습니다.

노력의 결과인지 운이 좋았는지 8월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합격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난생 처음 치르는 국가고시라 긴장도 많이 되고 합격자 문자를 보고 기쁜 마음도 한참 이어졌습니다.

남들은 늦었다 할 수 있어도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2022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열심히 배울 생각입니다.

졸업하면 남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그마한 힘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려고 합니다.

한 자 올립니다

황 미 숙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3반

다가오는 등교일 시험을 위해 교과서에 몰두하여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지만, 마음은 스산하고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3학년이 되고부터 이제 졸업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이제 이 학교를 떠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디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식의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득하네요.

세월이 아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 3년이 금방이군요. 시작종과 마침종에 따라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시려 마음 쓰시는 선생님들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정신을 가다듬는 친구들..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제 평생 동안에는 잊을 수 없겠지요. 이제 졸업장을 손에 쥐고 나면 우리들은 어엿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될까요?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월을 돌고 돌아 만난 인연들, 내 짝꿍, 급우들, 학우들 원주고등학교란 울타리 안에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무한하신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직 학교생활이 남아 있는데 오늘은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그저 오늘은 마음이 스산하고 글이 들어오지 않네요.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소리치며 인사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더욱 더 큰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부의 새로운 행복도전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1반

달래 냉이 향 짙은 구수한 된장국 냄새에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햇살을 타고 번지는 알싸한 생강나무 같은 향기가 콧노래를 부르는 아내의 손끝에서부터 온 집안에 퍼져 나온다.

오늘은 내 생애 새로운 학 획을 긋는 아주 특별한 날이다. 오랜 망설임 끝에 어렵게 결단을 내린 우리 부부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 날! 내 나 이 예순아홉에 아내와 함께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니, 어린 소년처럼 밤잠을 설치고 뒤척이며 일만 가지 생각으로 아침을 맞았다.

설렘과 두려움이 번갈아 일렁이는 부푼 가슴으로 정답게 맞잡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교문을 들어섰다. 처음 교실에 들어서니 모든 것이 어색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손자 같은 학생들과 나이 든 학생들 간에 서로의 얼굴을 훑쳐보며 학교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반가운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오셨다.

담임 선생님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부장 직책까지 겸임하신다고 간단히 소개를 마치신 후

입학식 요령에 대해 알려주시고, 나에게 중학교 시절 학생기자를 하였으니 또다시 학생기자를 부탁하셨다.

당혹스러워하는 나의 시선에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시작이야'라는 방송통신중학교 입학 시절 걸렸던 표어가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래,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입학식 선서를 하는 동안 파르르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우리 부부의 늦깎이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생활이 시작되었다.

네 명의 중학생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음만은 소년 소녀가 되어 교재를 챙기고 학교 가는 날이면 무슨 까닭인지 노년의 신분도 망각한 채 행복한 마음에 힘이 솟아났다.

학교에 등교할 때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열정을 쏟아내시는 선생님들의 정겹고 인자한 목소리가 기다려지는 날이다.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무슨 수업을 해 주실까?라는 기대감에 언제나 설렘으로 나는 소년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학교 가는 날들이 기다려진다.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이해가 어렵고 힘들지만, 늦깎이 공부를 통해 새로운 결단으로 인생을 설계하겠다는 당찬 학우들의 결의에 찬 얼굴을 생각하면 덩달아 힘이 솟아오르고 용기를 받는 것 같다.

배움의 욕구에 찬 열의는 대단하지만, 모두 때가 있는 법. 모두들 배움의 굶주린 한을 풀어보고자 각오가 대단한 학생들이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옛날처럼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다고 푸념들이다. 매일 선생님들과 대하는 강의가 아니라 방송통신으로 스스로 독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것들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있어 애를 태우게 한다.

2주에 한 번 학교 가는 날이면 그동안 혼자 풀 수 없었던 궁금한 학습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메모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학교를 다닌 지 50년이 넘는 나이 든 학생들이 쉽게 머리에 익혀질 리 없다.

특히 컴퓨터는 너무도 광활한 미지의 세계다.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컴퓨터 세계이다. 그런 컴퓨터를 접하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내가 컴퓨터 사용요령을 알려주지만, 받아들이는 아내의 입장에서조차 속 시원하도록 터득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다.

공부하다 힘이 들 때면 쉬어가자며 차를 몰아 산, 바다, 호수를 찾아 산책을 하며 자연경관을 둘러보는 것도 우리 부부의 또 다른 취미 생활이 되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사진을 찍으며 학생으로서 색다른 추억거리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다.

마침 교과교재 표지 공모전이 있어 우리는 그동안 찍어 두었던 사진들을 꺼내어 사진을 선별하여 함께 응모하였는데, 우리 부부의 사진이 모두 당선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게나마 새로운 삶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부부는 우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우리 동료 학우들과 배움을 통하여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그저 행복할 따름이다.

학교생활을 통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졸업장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부부의 행복한 도전의 꿈들은 오월의 뜨거운 장미의 열정처럼 활짝 피어날 것이다.

배움이란: 행복을 약속받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06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 81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소식1

2021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지난 10월 23일과 10월 31일 한국교육개발원 대강당에서 ‘2021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시상식’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2021년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은 전국 24개 방송중 및 42개 방송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총 5개 경연 부문(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에서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총 433건의 작품이 출품되어 우수작에게는 대상(교육부장관상), 특별상(시·도 교육감상), 한국교육개발원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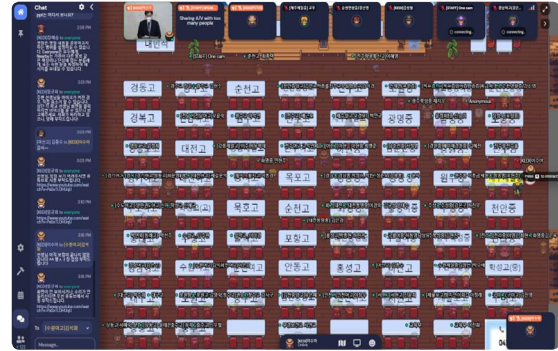
이번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별 대상(교육부장관상) 수상자와의 실시간 인터뷰를 통하여 다양한 수상 소감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소식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디지털교육연구센터 학습경험인정팀에서는 10월 27일(수)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은 가상공간 플랫폼(Gather.town)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포럼을 통해 학습경험인정제 발전 방향 논의,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안) 및 NEIS 학적처리 방안 발표가 이루어졌다. 포럼에는 전국 방송중 24개교, 방송고 42개교 교원(학교당 3명), 토론자 1명을 포함하여 총 199명이 참여하였다.



소식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종합상담 업무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디지털교육연구센터 학사운영팀에서는 지난 11월 18일(목) 한국교육개발원 1층 가변형 회의실 2A, 2B에서 WYP교육컨설팅 박원영 대표를 초빙하여 방송중·고 종합상담 업무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송중·고 종합상담 업무 담당자 포함 총 13명이 참석하여 전화 커뮤니케이션 화법 및 태도, 악성 민원 대응 원칙 및 사례별 대응 절차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소식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계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연수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1과정), 11월 30일부터 12월 3일(2과정) 2주간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계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하였다. 연수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와 전국 66개 방송중·고 관리자 및 교원이 참석하였다.



연수를 통해 HMD 조작 방법과 수업에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VR) 콘텐츠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이후 메타버스와 에듀테크를 접목한 수업 설계 또는 학교 행사 계획 수립 실습을 실시하였다.

연수생들은 연수를 통해 배웠던 다양한 에듀테크 및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교육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메타버스와 VR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의견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U-반딧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2021 VOL. 95

기사제보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주성중 유정숙 기자, 강릉중 김오진 기자, 포항중 황정순 기자,
광주북성중 최지숙 기자, 원주중 김춘옥 기자, 남춘천중 이영자 기자,
화명중 배창환 기자, 호원중 김연옥 기자, 목포중앙여중 이정자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춘천고 최동순 기자, 강릉제일고 서옥섭 기자, 수도여고 김은배 기자,
원주고 박상숙 기자, 황미숙 기자, 전남여고 김순례 기자,
제주제일고 채만석 기자, 대전고 신주철 기자, 수원여고 김옥희 기자,
호원고 김덕순 기자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경상중 박명동 학생, 화명중 김영조 학생,
홍성여중 정민자 학생, 김말순 학생, 진주중 이상철 학생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

경북고 신연옥 학생, 목포고 조오름 학생, 동래고 김종성 학생,
학성고 조남길 학생, 강릉제일고 김연미 학생, 전남여고 김정례 학생,
원주고 박진형 학생, 수원여고 김덕중 학생

뉴스레터 개발·기획

편 집 장 황준성(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편집총괄 장혜승(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장)

편 집 인 김수진, 김세은, 이윤지(이상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연구기획팀)

이외에 기사가 게재되진 않았지만 수고해주신 모든
방송중·고 선생님, 방송중·고 학생기자 및 학생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